

새 수목극 '여신강림' 김상협 감독 "차은우, '수호'역 1순위"

“문가영, 망가짐 거리낌없이 받아들여”

“황인엽, 목소리·우수에 찬 눈빛 좋아”

‘여신강림’ 김상협 감독이 주연배우 문가영, 차은우, 황인엽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다음달 9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되는 tvN 새 수목극 ‘여신강림’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트 코미디다.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상협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김상협 감독은 ‘여신강림’ 연출을 맡은 이유에 대해 “특별히 학원물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다”며 “첫 학원물이었던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만든 뒤 ‘다음에 만들면 좀 보완해서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웹툰 ‘여신강림’의 드라마화 제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신강림’의 핵심 포인트는 주경이의 웃픈 성장통”이라며 “이야기를 리얼하게 보여주기보다 비틀어

서 코미디로 선보이면 묘한 부조리가 재미를 줄 것 같다.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가영(임주경 역), 차은우(이수호 역), 황인엽(한서준 역)의 캐스팅에 대해서는 “원작이 히트한 이유가 인물들의 그림자와 캐릭터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싱크로율이 높은 캐스팅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문가영에 대해 “동적인 에너지가 강한 친구”라며 “주경이가 활개치면서 요리조리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문가영 씨가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아역부터 시작해서 또래에 비해 연기 내공이 있었고,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밸런스가 좋았다”며 “망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특수분장까지 하며 임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차은우에 대해서는 “원작 작가나 웹툰 팬 사이에서도 수호 역 1순위로 생

각하셨을 거 같다”며 “작업 전엔 차은우 씨를 부드럽고 상큼한 매력을 지닌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작업해보니 남자다운 면도 상당하고 대상을 바라볼 때 순수하면서도 슬픈 감성을 지니고 있더라”고 했다.

그는 “웹툰 속 수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이 부분을 씨앗으로 캐릭터에 색을 더하고 있다”고 전해 기대감을 자아냈다.

김 감독은 “황인엽씨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됐다”며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거칠면서도 웬지 모를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이어 “황인엽씨는 배려심이 많은 친구다. 인물 간의 케미를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며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밝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또한 현장에서 스태프와 돈독하게 일을 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덕분에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연 3인 외에도 주경의 가족과 학교 선생, 학생들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 캐릭터들은 주연들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조화가 어우러져 재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라며 “신인배우들이 많이 캐스팅돼 새로운 배우를 발굴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학창시절의 추억도 떠올려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또 “여기에 다양한 캐릭터를 풍성한 코믹 터치로 그린 이시는 작가의 필력이 더해진다”며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다는 만화 같은 설정이 자칫 시청자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어 주경이에게 감정이입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주경이에게 화장은 가면과 같은 요소다. 생존을 위한 가면, 그 뒤에 숨을 수 밖에 없어 페르소나의 삶을 선택하는 여고생을 통해 이 시대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인의 고립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술적 포인트도 언급했다. “전작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미니멀리즘이었다면, 이번에는 ‘맥시멀리즘’이라며 “주경이가 처해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다양한 색채가 더해지면 역설적인 코미디가 나올 거 같다. 하지만 산만해 지지 않기 위해 밸런스에 애를 썼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원작에 비해 인물들의 감정과 이야기가 깊어진다. 원작의 재미를 최대한 드라마로 녹여려고 고심했다”며 “삶에는 초콜릿처럼 달콤했던 순간들이 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문득 추억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그래미 수상 의지...“후보 오르니 욕심나”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한국 대중음악사에 새 역사 써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지명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 욕심을 내비쳤다.

방탄소년단은 25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후보에 오르니 수상 욕심도 생기고 기대된다”라고 후보 임성을 넘어 수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 신기하고 감격스럽다”라며 “노미네이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amici 여러분께 감사하다.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더 기쁘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 역사를 썼다.

‘그래미 어워즈’ 측이 이날 발표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21

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4대 주요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나름 중요성을 인정 받는 본상이다.

수상 후보 명단은 2019년 9월~올해 8월까지 발표된 음악을 대상으로, 음반 산업 종사자 협회인 레코딩 아카데미(Recording Academy) 회원들이 선정했다.

K-팝 가수 중에서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작년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는 시상자로 무대에 섰고, 올해 초 열린 제62회 시상식에서는 레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합동 공연을 펼친 바 있으나 수상자 후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후보 명단 발표 직후 공식 SNS에 “힘든 시기에 우리의 음악을 듣고 공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무엇보다 ‘그래미 후보 아티스트’라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건 amici 여러분이다. 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팝/록(Pop/Rock)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Favorite Duo/Group)’과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상을 받았고, ‘202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는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그래미 어워즈를 받으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석권이라는 ‘그랜드 슬램’ 기록을 쓰게 된다.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제63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1월31일(현지시간) 열린다.

윤도현 MC ‘트롯 전국체전’ 내달 5일 첫방

전국 트로트 유망주 발굴해 지역 간 대항전 벌이는 오디션



KBS 2TV ‘트롯 전국체전’이 다음 달 5일 처음 방송된다. 프로그램은 전국 8개 지역에 숨은 트로트 유망주를 발굴해 지역 간 대항

전을 벌이는 오디션 예능이다. 가수 윤도현이 MC를 맡고 배우 고두심(제주도)과 가수 남진(전라도), 김수희(경기도), 주현미(서울), 김연자(글로브), 설운도(경상도), 조항조(충청도), 김범룡(강원도)이 전국 팔도 감독으로 출연한다.

송가인, 주영훈, 별, 나태주, 하성운, 황지열, 박현빈 등이 코치진으로, 임하룡이 특별 응원단장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김호중의 외가 친척 이시현 그리고 트로트셋별 김산하와 윤서령, 박현호 등이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김혜수·유연석, 3년 연속 청룡영화상 MC

내달 11일 SBS·네이버 TV서 생중계

배우 김혜수와 유연석이 3년 연속 청룡영화상 시상식 MC로 나선다.

김혜수는 1993년 제1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MC로 첫 타이프를 끊은 이후 27회째 청룡영화상과 동행하고 있다. 유연석은 3년 연속 ‘청룡의 남자’로 낙점됐다.

김혜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영화를 지켜내신 영화인들과 잊지 않고 영화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치고 힘들 때 영화가 여러번 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렸

던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연석은 “3년 연속 청룡영화상에서 김혜수 선배와 MC로 함께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 예술계와 영화 산업이 힘든 시기였음에도 그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영화인들을 빛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41회 청룡영화상은 다음 달 11일 오후 9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SBS와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남규리 ‘씨야’, 재결합 끝내 무산...“소속사들 합의 불발”

9년만에 완전체 기대감 컸지만...“팬들께 죄송”



여성 발라드 그룹 ‘씨야(SEEYA)’의 재결합이 끝내 무산됐다.

남규리 측은 25일 “씨야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각 소속사들이 활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규리 측은 재결합 무산의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남규리 씨는 현재 소속사가 없고, 드라마(카이로스) 촬영은 12월 초 종영될 예정이라 씨야의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씨야가 올해 초 종합편성채널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슈가맨3’을 통해 재조명된 뒤 이 팀이 9년만에 완전체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

졌다. 남규리 측과 이보람 소속사와 김연지 소속사는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활동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규리, 이보람, 김연지로 구성된 씨야는 2006년 ‘여인의 향기’로 데뷔했다. 2011년 1월 6집이 무대를 끝으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후 남규리는 배우로 전향했고 김연지와 이보람은 솔로 가수로 나섰다.

그러다 지난 2월 ‘슈가맨3’을 통해 씨야로 재결합, 주목 받았다. 오랜만에 무대에 선 씨야 멤버들은 여전히 미모를 자랑하며 현역 못지 않은 무대매너와 가창력을 뽐냈다.

방송 후 씨야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존 히트곡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여인의 향기’, ‘구두’ 등이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기도 했다.

‘응팔 노을이’ 최성원, 백혈병 치료 받고 퇴원

백혈병 증세 악화로 치료에 전념했던 배우 최성원이 퇴원했다.

24일 최성원은 소속사 별오름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퇴원 인사와 함께 건강해진 근황을 알렸다.

최성원은 “격정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치료받는 과정에서 긴박한 상황도 있었고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할 수 없어서 가

족들도 잠깐 걱정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 건강히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나ге 몇 가지 미션이 생겼는데, 잘 수행하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근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성원은 2016년 4월 JTBC 드라마 ‘마녀보감’ 출연 중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활동을 전면 중

단한 뒤 이듬해 2월 복귀한 바 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회복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2007년 뮤지컬 ‘김종욱 찾기’로 데뷔한 최성원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덕선(혜리 분)의 남동생 성노를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빅이슈’ 등에도 출연했다.